

“난 ‘학교’의 최대 수혜자... 다른 친구들에 미안”



최근 종영한 드라마 ‘학교’ 김정현 “극 중 X 활동에 카타르시스 느껴”

“제 학창시절은 사실 10년도 넘었죠. (웃음) 그래도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태운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감정 표현에 서툴러 힘들어하는 소년요.”
최근 종영한 KBS 2TV 월화극 ‘학교 2017’에서 남주인공이자 반항아 현태운을 연기했던 배우 김정현(27)은 11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0여 년 만에 입은 교복이 어색했을 법도 한데 김정현은 학교 이사장인 아버지(이종원 분)와의 갈등, 여주인공 은호(김세정)와의 티격태격 로맨스를 다 잘 살려내며 이 드라마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김정현은 이에 대해 “시청률이 결국 동시간대 3위로 마무리됐다. 물론 좀 더 잘 나와서 금도 2학년 1반 친구들이 다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래서인지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조심스럽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도 드라마 화제성은 높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극 중 금도교는 성적지상주의부터 부의 대물림까지 부조리한 사회의 축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태운은 ‘X’로 변신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태운이 X 활동을 시작한 건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어요. 정의감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죠. 이후에는 은호 때문에 활동을 계속하게 됐고요. 그런데 막상 찍어놓은 걸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니 X 활동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학창시절은 어땠느냐는 물음에 김정현은 “연기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답했다. 다른 친구들이 자습할 때 희곡을 중얼중얼 읽기도 하고, 노래 연습도 했다고. 다만 태운처럼 오토바이를 주체적으로(?) 타진 않았다고 한다.
“오토바이를 잘 타는 친구 뒤에 얹혀 댔죠. (웃음) 학창 시절 최고의 일탈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학교 바로 앞 4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닷가였거든요. 수업시간에 땀땀이치고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수영하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들이 잡으러 오시고... (웃음) 이번 ‘학교’를 찍으면서 그 시절 서툴렀던 감정 표현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른들과도, 이성 친구와도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지 몰라 조금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현은 이번에 함께 호흡한 김세정, 장동윤 등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세정 씨는 연기를 처음 하는데도 재치와 유연함이 넘쳐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다”며 “장난기 많은 동은 씨도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부자지간으로 호흡한 이종원 선생님은 따님이 제 팬이라며 쿨기도 가져다주시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정현은 2015년 영화 ‘초인’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질투의 화신’(2016), ‘역적’(2017), ‘빙구’(2017) 등에 출연해 이제 막 인지도를 쌓고 있는 신인이다.
데뷔가 다소 늦었다는 말에 그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보고 한바탕 눈물을 쏟은 뒤 연기에 입문했는데 20대 초반에 군대에 다녀오고 연극무대와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한 일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정현은 “시작은 늦었지만 제 출연작들을 보면 다 전작에서 절 좋게 봐주신 분들이 소개해주셔서 활동이 이어지고 이어진 것이다”이라며 “작품 하나라도 관객, 시청자에게 울리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계 관행 바뀌어 더이상 유사 피해 없길”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 중인 배우곽현화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배우 곽현화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장면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며 “영화계 출연계약서 관행이 바뀌어 유사 피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현화는 지난 8일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인터넷)TV에 배포한 것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를 밝히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현화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한 뒤 출연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 감독이 해당 장면 촬영일에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실제로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극장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문제의 장면을 빼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간 채 유통되는 것을 알게 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이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이 감독으로부터 ‘미안하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는 말을 듣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그것은 모두 협의 과정에 불과하니 출연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장면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까탈스러운 배우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고 다시 영화계에서 나를 안 써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간의 경우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배우 곽현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통상 사용되는 계약서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계약서 관행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논의도 구두 협의에 그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등의 현실적인 권리보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잠시 안녕” 강하늘 현역 입대

배우 강하늘이 11일 현역으로 입대한다.
강하늘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강하늘이 오늘 오후 2시 충남 육군 노산훈련소에 입소한다”면서 “조용히 입대하기를 바라는 본인의 뜻에 따라 입소 전 별도 행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하늘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전문 특기병(MC승무원 병)으로 복무한다.
강하늘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사복한 사진과 함께 입대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영화 ‘동주’, ‘재심’, ‘청년경찰’ 등에서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연합뉴스

박해진 中 빈곤아동 위해 1000만원 기부

한류스타 박해진(34)이 중국에서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11일 “박해진이 최근 중국 무료오찬 기금관리위원회와 큐큐공의 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캠페인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해진은 그간 중국 사막화 지역 개선을 위한 나무 기부, 환아 후원, 우물 파기 봉사 등을 이어왔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가 중국에 기부한 액수는 총 7억원에 달한다. 그는 사회복지에 공헌한 바를 평가받아 최근 서울특별시시장 자원봉사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해진은 드라마 ‘사자’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현수
9	30 행복나눔(재)	00 TV 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0 1대 100(재)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0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
11		50 랜제리 소녀시대(재)	30 시청자TV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신(재)		00 MBC정오뉴스 20 TV 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생생정보 스페셜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분야>	00 생활의 발견(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15 텔레몬스터(재) 25 수빈스토리 2 55 별별머드(재)	00 뉴스브리핑
3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하하랜드 스페셜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평창동계올림픽 G-150일 특별생방송 1부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7	00 KBS 뉴스 7 35 평창동계올림픽 G-150일 특별생방송 2부	50 이름 없는 여자	150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1대 100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별별머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10	35 감성투 고맙습니다 2 특선다큐 포털다운 최초 공개 화학무기의 비밀	00 랜제리 소녀시대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30 KBS 뉴스리인 50 독립영화관 <올리브 올리브>	10 남편 경쟁 프로젝트 가두리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		35 유희열의 스케치북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킷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멕시코 맛기행 -2부 옥수수의 나라>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장수의 비밀 10:30 한국기행(재)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9:55 극한직업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등갈비 비지찌개와 문어초무침)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저 푸른 초원 위에 몽골 2부 아크의 고향 아르헨티나>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바람의 언덕 2부 내 이름은 바람 바람>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19:00 몬카트(재)	21:50 EBS 다크프라이즈 22:45 글로벌 아빠 이야기 심만리 23:35 메디컬 다크 - 7요일 24:25 문화예술 특집 <나를 찾아줘> 24:30 한국영화특집 <우아한 세계>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문화예술 특집 <나를 찾아줘>		
08:00 덩동덩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크-7요일(재)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년 물고기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09:00 몬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 (음 7월 22일 壬寅)

<p>子 48년생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판국이다. 72년생 일시적인 현상과 빛깔이 현혹되지 말라. 84년생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니 즐겁게 맞이하자. 행운의 숫자 : 99, 48</p>	<p>午 42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라. 54년생 작은 노력에도 결실이 쉽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따른다. 66년생 시작만 하여도 절반의 성공은 담보한 셈이다. 78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90년생 실행 전에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5, 42</p>
<p>丑 49년생 반작용의 현상이 놀랄 수도 있다. 61년생 전제의 특색을 파악하고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73년생 처음에 인식하였던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85년생 길성이 흥행하므로 경사가 따를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5, 61</p>	<p>未 43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5년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판국이다. 67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오산이 있다. 79년생 신하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91년생 결과가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6, 44</p>
<p>寅 50년생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생참고 버티다 보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으니라. 74년생 운세는 뒷받침되고 있으니 좌우 살필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86년생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3, 32</p>	<p>申 44년생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차지하게 된다. 56년생 녹음방초에 새가 지지귀니 마음껏 즐겨도 되는 흥운의 성국이다. 68년생 절만 활동한다면 여러모로 유익하리라. 80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양태로다. 행운의 숫자 : 47, 50</p>
<p>卯 51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견조해질 수도 있다. 63년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75년생 일정이 다소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87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6, 58</p>	<p>酉 45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57년생 총동의 폐해는 의외로 대안할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9년생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81년생 생 외형만 드러내도 의미는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60, 81</p>
<p>辰 52년생 속단은 금물.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해 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76년생 동상이몽의 판세이므로 부자연스러움 수밖에 없다. 88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행운의 숫자 : 26, 08</p>	<p>戌 46년생 어렵잖아서 행해도 허등의 지장이 없겠다. 58년생 수단이나 방법에 흠결이 보이므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70년생 집중한 만큼에 비례한 성과가 있겠다. 82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78</p>
<p>巳 53년생 끈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65년생 수려 여곡절 끝에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77년생 기다렸던 기회들이 보인다. 89년생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으니 함부로 버리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1, 59</p>	<p>亥 47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59년생 새로운 시도가 문제일 수 있으니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71년생 흠결이 발생하지만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83년생 첫 번째의 것이 가장 실속 있고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68, 3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